

(인도자용)

돌판에 새긴 말씀 “십계명” 5

“폭력에서 평화로”

“살인 하지 말라”



마음열기

아래 내용은 분노조절 장애 테스트입니다.

1.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yes, no)
2.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화가 난다.(yes, no)
3.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yes, no)
4.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yes, no)
5.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이 일어난다.(yes, no)
6.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yes, no)
7.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yes, no)
8.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yes, no)
9.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yes, no)
10.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yes, no)
11.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yes, no)
12.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yes, no)

해당하는 항목이 1~3개인 경우에는 감정 조절이 가능한 단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8개에 해당하는 분들은 약간 부족한 경우이니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9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분노 조절이 어렵고, 강한 공격성을 띄고 있는 것이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결과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당신이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마태복음 5:21-22

21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산헤드린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

요한일서 3:15-18

15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16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 줌이 마땅합니다.

17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18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예수님은 과거의 ‘살인’이라는 행위에 견주어 같은 계명을 어떤 부분까지 다루고 계신가요?(마 5:22)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산헤드린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

☞ ‘형제에게 화를 낸다’, ‘나쁜 말을 한다’, ‘바보라고 한다’는 것이 왜 심각한 죄로 여겨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지 아래 칼 바르트의 글을 참조하여 서로 나누어 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에 살인자를 품고 있다. 하나님이 그리 명하셨는지, 그저 주변 상황이나 규범 탓인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살인자는 사슬에 묶여 억눌려 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 살아 날뛰고 있어서 언제라도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너무나 자주 살아 움직일 때가 많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분노,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띤 분노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요일 3:15)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 우리가 이웃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를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16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16-17절)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 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겠습니까? 그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2. 최근에 어떤 말이나 태도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나요?

3.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누군가가 미워질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당신은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을 어떻게 표현 하나요?

4. 요한이 18절에서 말한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진실 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관계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

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적용과 결단

조엔 치치스터 라는 사람은 십계명의 모든 항목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지키려 애쓰지 않고, 가장 무신경하게 여기는 계명일 것이다. 우리는 죽여야 하는 이유를 항상 만들어 낸다. 국가 수호를 위해 죽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고,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죽이고, 강권을 발동하기 위해 죽인다.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죽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일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의 다른 일부분을 죽인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숲을 유린하고, 공기를 더럽힌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것 또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말입니까?”

당신의 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